

박태원 소설, 장문주의의 미학과 비의

조남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1930년대 소설은 전대인 1920년대와 후대인 1940년대보다 성숙된 기교를 보여 준다. 박태원은 이상이라든과 최명익과 함께 1930년대의 대표적인 스타일리스트로 꼽혀 왔다. 박태원의 서술 기교의 하나는 흔히 장거리 문장이나 마라톤 문장으로 표현되는 길고 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 데서 찾을 수 있다. 박태원은 「거리」(『신인문학』, 1936.1), 「방랑장주인」(『시와 소설』, 1936.3), 「悲涼」(『중앙』, 1936.3), 「진통」(『여성』, 1936.5), 「보고」(『여성』, 1936.9), 「星群」(『조광』, 1937.11), 「골목안」(『문장』, 1939.7) 등과 같은 소설을 통해 한국현대소설사에서는 유례가 드물게 긴 문장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내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태원은 짧은 문장도 적절하게 구사할 줄 알았다. 초기작 「수염」(『신생』, 1930.10)은 단문주의적 경향이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정도로 단문들을 많이 보여 주고 있으며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다. 이때의 단문주의적 경향은 초기작에서 구사되었던 것인 만큼 박태원이 표현력에 자신감을 갖기 어려웠던 데서 취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창 장거리 문장을 능숙하게 만들어 낼 무렵에 발표된 단편소설 「성탄제」(『여성』, 1937.12)의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면 박태원은 단문도 효과적으로 구사할 줄 알았던

작가임을 알게 된다.

(가) 영이와 순이—이 두 형제는 사이가 좋지 못했다. 그야 나이가 네 살이나 그 밖에 틀리지 않는 계집애 형제지만, 흔히 사이가 좋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영이 형제는 그저 그만한 정도로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순이는, 우선, 제형 영이의 직업이 불쾌하여 견딜 수 없었다.

(박태원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8, 3-4쪽

*이하 『소설집』이라 칭한다)

(나) 그래 사내들은 차차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나 정작 「애아버지」까지 그를 소원히하기 시작한 것에는 영이는 참말 뜻밖이라, 슬프게 놀랐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여 보면, 그것이 역시 그러한 남자들의 마음이었다. 불행에 익숙한 영이는, 그래, 이제 새삼스럽게 제 신세를 한숨지려고도 안 했다.

순산을 하였다고 기별을 하자, 남자에게서 오십원의 돈이 왔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영이도 어린 것도 만나 보러 오지는 않았다. 물론 영이는 이미 무정한 남자를 심하게 탓하지 않았다. 「오십원」은 그가 예상하였던 것보다도 오히려 많은 금액이다.

영이는 그 돈을 긴하게 받아 썼다……

(『소설집』, 1938, 13-14쪽)

이상의 인용문은 광복 이후 많은 독자들을 사로 잡았던 황순원 소설 문장의 전형 또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황순원 소설이 대체로 그러했던 것처럼 서술보다는 묘사에, 내면 추구보다는 외면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이미 박태원은 「성탄제」 바로 직전의 여러 소설들을 통해서 단문주의적 경향은 작가의 주관적 서술 태도라든가 작중 인물의 내면 탐색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

「방란장주인」(『시와 소설』, 1936.3)은 “그야 主人의 職業이 職業이라 決

코 팔리지 않는 油畫 나부랭이는 제법 넉넉하게 四面 壁에가 걸려있어도, 所謂 室內裝飾이라고는 오직 그뿐으로, 元來가 三百圓남짓한 돈을가지고 始作 한장사라, 무어 茶집다옴게 꾸며볼려야 꾸며질 턱도없이, 茶卓과 椅子와 그러한 茶房에서의 必需品들까지도 專히 素朴한 것을 趣旨로, 蓄音機는 「子爵」이 寄附한 포-타블을 使用하기로하는等 모든 것이 그러하였으므로”와 같이 시작하여 “무엇이라 실사이 없이 종알거리며, 무엇이든 손에 닳는대로 팽겨치고, 깨트리고, 찢고, 하는 中年婦人의 狂態 앞에, 「水鏡先生」은 完全히 萎縮되어, 連해 무엇인지 謝過를 하여 가며, 그 狂亂을 鎮定시키려 애쓰는 모양이, 壁紙는 단히어 있어도 亦是 女子의 所行인듯싶은 그 찢어지고, 붙어지고, 한 틈으로 너무나 歷歷히 보여, 芳蘭莊의 젊은 主人은 좀더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거의 달음질을 쳐서 그곳을 떠나며, 문득, 黃昏의 가을 별판우에서 自己 혼자로서는 아무렇게도 할수 없는 孤獨을 그는, 그의 全身에, 느꼈다-----”로 끝나고 있다.

‘~다’와 같은 종결어미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방란장주인」은 단 한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문장은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로 끝나는 법이라면 「방란장주인」은 분명 단 한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국소설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형태를 지닌 작품이 된다. 이 소설은 200자 원고지 40장 가까운 폰트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다. 1930년대의 단편소설의 길이는 오늘날의 폰트의 길이와 큰 차이가 없다. 이 작품에서 한자가 과잉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도 장문의 빈번한 제시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을 사유의 차원으로 몰아 가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웬만한 작가들은 ‘한 작품=한 문장’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임에도 박태원은 40장으로 된 한 개의 문장을 여유있고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그렇길래’, ‘그리고’, ‘하여튼’, ‘만약’, ‘그러면’, ‘물론’, ‘허지만’ 등과 같은 얼마 안되는 접속어를 찾아 낼 수 있다. 이 중에서는 ‘만약’과 ‘그러면’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다. 장문을 무리없이 유지할 수 있으려면 가정문과 같은 것이 많아야 함을 박태원은 실제 소설 창작을 통해 가르쳐 보이고 있다. 이 소설은 한 젊은 화

가가 방란장이란 카페를 차려 문인인 친구들의 도움과 성원을 받아 가며 영업을 했으나 점점 장사가 되지 않아 빚만 쌓이고 여급 미사에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해 고민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 1930년대 한국 예술가의 가난과 무기력을 잘 보여 주고 있는 「방란장주인」에게서 가난과 무기력이 상호 원인이요 결과가 되는 심각한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이렇듯 심각한 상황은 마라톤 문장을 만났을 때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드러낸다고 박태원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진통」(『여성』, 1936.5)에서 가장 긴 문장은 “그야 아무리한 그로서도 여자가 능히 자기자신 할수있는일을 염체도 좋게스리 그를 이용할어(하려고)만 들어, 가령, 한장의 엽서조차 그에게 부쳐달라 하였을때에는, 역시 마음속에 몽쿨한 무엇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고독한이에게 있어, 그것은 그래도 비굴은 하나마, 한 개의 슬픈 행복이었고”로 시작하여 “이 병에는 오직 맑은 공기와 또 기름진 음식이 약인 것을, 어린 「댄서」의 넉넉지않은 살림살이로는, 그것도 뜻과 같지는 안을것이라고, 간혹, 그의 기침소리를 들을때마다, 마음은 언제든 아파, 참 요사이는 그의 신호소리도 듣지 못하겠다고, 대체 어쩔일인가, 하고 궁금하여,”를 거쳐 “변개같이 여자의 그렇게도 투명한 피부를 생각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자기가 언제까지든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르겠다고, 막연하게 그러한 난데없는 생각을하여 보며, 어느틈엔가 제자신 하복부에 격렬한 진통을 느끼기조차하였다.”로 끝나고 있다.

「진통」은 아파트 아래 층에 사는 남자가 바로 윗층에 사는 젊은 여자를 사모한 나머지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해주다가 그녀가 댄서인데다 임신중임을 알게 되었는데도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진통」에서 장문은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 것(200자 원고지 2.5장)은 그가 그녀와 알게된 과정을 보여 주고 있으며 두 번째 것(200자 원고지 3.8장)은 그녀의 심부름을 기꺼이 해주는 그의 심리를 열어 보이고 있으며 이 소설에서 가장 긴 세 번째 것(200자 원고지 20여장)은 그녀의 실체를 알았으면서도 그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다)자기가 손수 두벌목수로 나서서, 서투른 솜씨에 톱질, 대패질—, 그 래도 어떻게 집안을 뜯어 고쳐, 명색이 다방이라 꾸며 놓고, 「자작(子爵)은 자기가 연래로 애용하여 오던 「포오타블」과 이십여 매 레코오드를 기부하였고, 「만성(晩成)이는 또 만성이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집하여 두었던 것인지, 대소 칠팔개의 재떨이를 들고 왔던 것이요, 또 한편 「수경선생(水鏡先生)은 한분의 난초를 들고 와서, 다방의 이름은 「방란장」이라든 그러한 것이 좋을듯싶다고 제의하여 주는등, 이 조고만 깃다점이 하나 탄생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심로와 또 사랑이 필요하였던가 하면 어느틈엔가 불우한 화가의 마음은 눈물겨워지고, 그렇길래, 이제 이르러 끝끝내는 문을 닫히고 말게 되는 것이 스스로 애석하여 견디는수 없는것이나, (그렇다고 매일같이 손님은 찾아들지 않고, 빛은 빗대로 질머진채, 어떻게 하루라두 더 버티어 본다는 재주가 있단 말인가?……) 다음은 으레히 쓰디쓴 입맛과 하잘수 없는 한숨이 있을 뿐이다.

(「성군」, 『박태원 단편집』(1939), 120-121쪽

*이하 『단편집』이라고 한다)

「성군」은 「방란장주인」의 속편에 해당한다. 이 작품의 중심 사건은 두 개로 추려낼 수 있다. 첫 번째 중심 사건은 방란장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다른 하나는 음악을 하겠다고 하는 윌리엄텔군과 그 아버지가 진로 문제 때문에 갈등을 보이다가 결국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고 만다는 내용이다. 첫 번째 장문이 200자 원고지 2.8장 정도의 분량으로 방란장을 개업할 때의 분위기를 그려 놓았는가 하면 2.2장 정도의 두 번째 장문과 3.5장 정도의 장문은 둘다 방란장 주인의 화가로서의 한계와 다방주인으로서의 패배담을 그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위의 인용문은 바로 두 번째 장문이다. 이 문장에는 방란장 주인, 자작, 만성이, 수경선생 등 네 명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병치의 형식으로 담겨 있다. 자작, 만성이, 수경선생 등 세 사람의 도움은 방란장 주인이 깃다점을 그만 둘 수도 없고 마냥 계속하기도 어려운 현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그래도’, ‘또 한편’, ‘그렇길래’, ‘그렇다고’, ‘다음은’ 등과 같은 접속어들이 징검다리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접속어들은 선행절의 내용을 노골적으로 뒤엎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씩 그러나 분명하게 뒤튼고 있다. 이러한 접속어들은 방관장주인이 계속해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주변성에 놓여 있음을 입증해 준다.

(라)나는 원갓 가정 내막에 통효하고 있는 나의 벗이, 그의 이웃집 소동을 어떻게 감수하고 있나, 그 기색을 살피기에 바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대체 무슨 일로하여 그토록이나 험한 소리로 다투지 않으면 안되는것인가, 그것을 놀라우게 또 불안하게 생각하고, 인생에있어, 그것이 그렇게 중대사가 될수 없을진대, 부디 어느편에서든 얼른 양보하여, 남들의 비웃음을 더받는 일이 없으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빌었던것이나, 나의 희망은 헛되어, 옆집에서의 소동은 결코 쉽사리 진압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음성은 좀더 높아가, 마침내 안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방을 내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하여, 우리가 그것에 결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소동의 내용임을 내가 알 수 있었을때, 나는 순간에, 거의 킷바퀴까지 새빨개 가지고, 그 사건지 며칠 안되는 젊은 점원 앞에서 남김없이 손상되는 나의 체면을 안타까웁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거리」, 『소설집』, 1938, 125쪽)

「거리」는 세 딸들이 모두 기생인 안집과 어머니가 봉투만들고 형수가 샅바느질해서 겨우 연명해 가는 셋집이 집세 문제를 놓고 크게 싸움하는 것을 그려 놓은 작품이다. 안집은 셋집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깔보고 있고 셋집은 안집을 기생집이나 하는 집이라고 멸시해 오던 터였다. 이 작품에는 일곱 개의 장문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것(1.5매)은 어머니, 형수, 조카와 ‘내’가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두 번째 것(2.4매)은 안집의 세 딸의 복잡한 남자 관계를 보여 주고 있고 세 번째 것(3.4매)은 가장 미인이기는

하나 돈은 제일 못 버는 둘째 딸 옥선이의 심사를 그리고 있고 네 번째 것(1.9매)은 무능력한 글쟁이인 ‘나’의 복잡한 자의식을 털어 보이고 있다. 다섯 번째 것(2.4장)은 바로 위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싸움이 얼른 진정되기만을 바라는 ‘나’의 무력함을 강조해 보이고 있다. 여섯 번째 것(3.1장)에서는 안집과의 싸움에서 누구 편도 들어 주기 어려운 ‘나’의 입장이 고백되어 있으며 마지막 일곱 번째 것(5.7매)에서는 안집딸들이 구변이 좋아 우리집이 질 것같다는 ‘나’의 예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마)최군의 아우가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당장은 아무렇게도 할수 없는것이 마음 괴로웁지 않을수 없었으나, 사실 그러한 것은 이미 결코 대단한 문제일수 없이, 나는 도리어 그렇게까지 내가 스스로 자신을 경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틈엔가, 최군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깨트려 놓은 그 장본인의 몸에서 결코 소홀히 볼 수 없는 몇 개의 미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은근히 찬미하였고, 따라서 최군을 비난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져, 그것을 나로서는 어찌하는 수 없이, 이것은 대체 어인 까닭일까 하고 혼자 생각하여 보았어도, 그것이 단지 이방의 분위기라든지, 나의 거의 극도의 피로에만 말미아른것같지는 않았다.

(「보고」, 『단편집』, 1939, 214-215쪽)

이상의 인용문은 「보고」의 장문들 중 가장 긴 것이다. 이 부분의 내용은 작중의 ‘내’가 최군 아우의 편지를 받고 최군을 찾아 가 두 남녀 사이를 떼어 놓으려 하는 마음이 막상 최군 애인을 직접 대면하고는 뒤흔들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고」에는 일곱 번 정도의 장문이 나오는데 다른 작품에 비하면 장문들이 모두 짧은 편이다. 대략 200자 원고지 1.2장에서 1.7장에 이르는 길이로 되어 있는 장문들은 대항 권번의 나무간판이 걸린 집의 외양, 최군이 바람난 것, 형을 비난하는 최군 동생의 편지, 최군이 사는 곳을 찾아 가는 과정, 최군이 애인과 사는 방, 최군 애인의 매력 등을 서술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랑」(『중앙』, 1936.3)에는 두 개 정도의 장문이 나오는데 이 중 하나는 한 남자가 의리와 실리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두 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실직자인 남자로서는 별로 사랑스럽지는 않지만 동거녀인 술집여자 영자에게 얽혀 살 수밖에 없다. 다음의 긴 문장은 남주인공이 2년 전에 여급인 영자와 유박사 둘째 딸 혜숙이 사이에서 잠시나마 고민했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바)그러기에 쉽사리 그의 태도를 결정 못하고, 마침내는 그의 부모와 함께 유박사의 집을 찾아, 혜숙이와 한 자리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이야기로 지냈던 것이요, 그 결과는, 승호의 마음을 좀더 끌었던 것에 틀림없었으나, 그러나, 경력없는 젊은 사람의 단순한 생각과, 또 그 인도주의적 의협심은, 도리어 그러하면 그러할수록에, 영자의 처지가 한없이 가여워보였고, 그 가여운 영자를 버리고 그보다는 모든 조건이 우수한 혜숙이에게로 달리는 것이, 남자로서 꺾으나 떳떳지 못한 것같이, 또 큰 죄악인거나같이, 그렇게만 꼭 생각되어, 자기가 사실 얼마나 영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영자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들의 장내가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원장 중요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일도 없이, 그의 부모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와 또 질책이 크면 클수록에, 그의 먹은 마음은 더욱 굳어져, 거의 부자의 의를 끊어서까지 자기의 열정을 고집하였던 그것이, 뒤에 생각하여, 결코 옳지 않았다.

(『소설집』, 1938, 182쪽)

「골목안」(『문장』, 1939.7)에 나오는 두 개의 장문들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털어 놓고 있다. 하나는 문주가 지체 낮은 집안의 딸과 사귀는 것을 부모가 반대하자 계속 반대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으름장 놓기까지의 과정을 그려 놓았고 또 다른 하나는 문주 부모가 김서방과 함께 어떻게 하면 문주와 순이 사이를 갈라 놓을 수 있을까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려놓고 있다.

(사)지금은 한껏 흥분이 되어, 무슨 말을 하든, 귀에 바로 들어갈 까닭이 없는 일이라, 어떻게든 달래서 시골로 보내놓으면,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 한때 흥분도 가라앉을것ियो, 그러하면, 본래 남유달리 똑똑한 아이라, 저도 냉정히 생각하여본다면, 마침내는 제 잘못을 깨닫고 말것은 분명한 노릇이라, 그저 어디 마땅한데를 가리어 시골로 가있게 하는 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따는 그도 그럴법하였지만, 말이니 쉽지, 지금의 경우가 경우인 때에, 어디 시골로 얼마동안 가있으랴만, 곧 그러마고, 그 애가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을리는 없는 일이라, 그렇다고 스물돌이나 된 놈을 종아리를 때린다는수도 없었고, 이것은 참 실없이 일이 난처하지 않느냐고, 한참들 머리를 앓을 때,

「가만이들 쟁쇼. 어디, 제가 한 번 말을 해 보지요」

하고 나선 것은, 이집 사랑에서 놀고 있는 김서방이라고, 바둑을 잘 두어 때때 주인영감의 상대도 하였고, 약간의 전기지식도 써먹으려면 써먹을수 있는 것이어서, 안에서 대리미나 곤로 같은 것 병이 나면, 제손으로 일수 잘고 쳐놓는 사나이였다.

(『단편집』, 1939, 72-73쪽)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박태원 소설의 큰 특징의 하나인 장문은 주인공이 번민하거나 갈등을 보이거나 잔뜩 위축될 때 카메라를 들이 대는 경향이 있다. 박태원의 경우, 소설에서의 단문주의적 경향과 장문주의적 경향은 묘사/서술, 단속/지속, 진행/정체, 외면화/내면화 등과 같은 이항 대립을 보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